

미관·안전 해치는 재개발 현장 ‘흉물 가림막’

광주 곳곳 가림막 너털너털
태풍에 무너지며 차량 덮쳐 아찔
소음·비산먼지 고스란히 유출
주민 항의에도 “법적 문제 없다”
전일빌딩 예술작품화와 대조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3동 재개발 지역 공사 현장의 가림막이 찢겨진 채 방치되면서 건물 철거 공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재개발구역은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넘어진 공사장 가림막 보수작업이 한창이었다.

한양건설에서 아파트 8개동 464세대를 짓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일 아파트 5층 높이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인근 차량과 건물을 덮쳤다. 다행히 새벽시간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언제 또 다시 가림막이 무너져 내릴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같은 날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 3동과 우산동 재개발지역 공사장도 찢어진 가림막이 이곳 저곳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북구 중흥3구역에는 제일건설이 아파트 17개동 1556세대를, 바로 인접한 북구 우산동에는 GS건설과 금호건설이 아파트 25개동 2564세대를 짓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28만7000㎡에 달하는 면적을 높이 3m 가림막으로 둘러싸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곳곳이 찢기고 바람에 펄럭이는 등 ‘흉물’ 그 자체였다.

공사 관계자들은 태풍을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중간에 구멍을 내는 등 긴급 대처를 통해 가림막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를 막아냈다는 입장이지만, 찢겨진 가림막 사이로 철거공사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여·75)씨는 “공사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뜸 끊어졌는데 가림막까지 찢어져 있으니 동네가 더욱 황폐하게 보인다”며 “공사가 끝나려면 수년이 걸린다는 데 언제까지 국밥집을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안전시설인 ‘가림막 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해 되레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미관 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고가의 철관 가림막을 설치하고 예술성 있는 공공디자인 작품으로 활용까지 하고 있지만, 수익에만 치중한 대다수 건설사는 저가의 마대자루 소재 천 조각 한장으로 공사장 주변을 형식적으로 가려 놓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단속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단속이나 관리 감독에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 도심정비사업은 20곳(동구 5·서구 3·남구 4·북구 7·광산구 1)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나선 대다수의 건설사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마대 자루 소재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약한 재질의 저가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가림막 시설 자체가 무너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재개발현장에서는 높이 10m 가림막이 초속 10m 바람에 기울어 동구청이 긴급조치를 했고, 지난 5월 27일에는 동구 계림2구역 주택 재개발공사현장 가림막이 넘어졌다. 또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가림막이 찢기고 파손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장 인근 주민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도심 공사장은 가설울타리를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이나 재질은 명시돼 있지 않다.

동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건설사들에게 마대 가림막을 철재 가림막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탓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월 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전일빌딩은 건물 외벽에 높이 3m 철관 가림막을 두른 뒤 가림막 자체를 공공디자인 예술작품으로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업체는 전국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에 오른 김동하 건축사의 작품 ‘기억을 품고 풍경을 너머’를 가림막 위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아예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사장 가림막을 도시경관의 하나로 꾸미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라탕’의 배신

전문음식점·원료공급업체 등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연제, 어디서, 누가 제조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의문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방에서 마라탕을 제조·판매한 마라탕 전문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중국 사천 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상귀’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귀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 위반(8곳) 등이다.

광주에선 모두 2곳이 적발됐는데, 광주시 북구의 A음식점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했으며, 북구의 B음식점은 제조연월일 미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 맛으로 마라요리 열풍이 불면서 마라탕 전문음식점이 전국 곳곳에 생겨남에 따라 긴급 위생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제철 부두 석탄운송 선박 화재... 선원 12명 대피

22일 새벽 5시 5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정박 중인 1만 4000t급 석탄운송 선박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하역기계와 선박 일부를 태우고 2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배에는 석탄 500여이 실려 있었으나 불길이 저장고까지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일본영사관서 “아베는 사죄하라” 대학생 6명 기습시위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일본영사관에 진입, 영사관 마당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담근 플래카드를 펼치고 같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와 구호 내용은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이었다.

22일 오후 2시 35분께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서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소속 대학생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주권 침탈 아베 규탄’이라고 적힌 가로 170cm, 세로 50cm 크기 플래카드를 공중에 펼치려고 그 끝부분에 생수통을 달아 영사관 담장 너머 밖으로 던졌으나 플래카드가 철조망 등에 걸리는 바람에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연합뉴스

애완동물이 조리기구 눌러 잇단 화재... “전원 꼭 차단하세요”

○...집 안에 홀로 남겨진 고양이가 조리기구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에 주의를 당부.

거주자가 기르는 고양이가 주인이 외출한 사이 주방의 인덕션(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판명.

○...22일 광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나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는데, 조사 결과 원룸

○...소방당국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은 외출할 때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등의 전원을 아예 차단해야 한다”며 “만약을 대비해 조리기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성 추행·상습 행패... ‘외국인 동네조폭’ 구속

여성을 추행하고 거주지 인근 주민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외국인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2월 2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월곡동 일원에서 2년 6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며 불법 체류했다.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월곡동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주민들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운다는 이유로 등으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월곡동 일원에서 2년 6개월간 노숙생활을 하며 불법 체류했다.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월곡동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도 확인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운다는 이유로 등으로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갯벌에 밧 빠진 30대, 40분 사투 끝 해경이 구조

30대가 갯벌에 밧이 빠져 40분간 사투를 벌이다 해경에 구조됐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힘이 빠진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해경에 구조 신고를 하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22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신모(37)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20분께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 방파제 40m 앞 갯벌에서 쟁쟁어를 잡던 중 오른쪽 밧이 빠져들었다.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뱀배를 이용, 신씨에게 접근 한 뒤 로프를 연결해 육상으로 끌어냈다. 다행히 신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다.

방파제가 멀지 않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신씨는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수록 더 많이 빠지는 갯벌 특성상 신씨의 허벅지까지 들어가며 더욱

완도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4화정역 화정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상무대로

4동성역 동성역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동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